

## 일본의 ESD 정책과 제도, 이니셔티브 연구

이창언\*

양재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SD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쇄신으로서 공공인식을 증대하고, 개인의 환경 책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더 많은 동기 부여와 의무사항을 높이기 때문이다. 10년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SD, 2005-2014)이 결정되었다. 2014년 일본에서 개최된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에서 일본은 'ESD 정책 시민참여에 관한 제언'을 제안하고, 2015년 5월 한국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중 4번 목표의 초안이 될 'Education 2030'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ESD와 SDGs 실행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ESD와 관련 법과 제도, ESD가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운영되기까지의 과정과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ESD 운영에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SD, 2005-2014),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

\* 주저자, 경주대학교 SDG·ESG 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경주대학교 관광산업학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세계는 급속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훼손, 자원의 고갈, 빈곤의 확대, 오염 확대 등 인류의 개발 활동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이러한 지구 규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일으키는 힘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학습·교육 활동이다. 즉, ESD는 지구가 직면한 긴급하고 극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며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ESD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년~2014년)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관 기관으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를 선정하였다.

2015년 9월 유엔이 합의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지역적 맥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ESD, SDGs 교육을 지역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기본 원리로 평생학습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학습도시는 특히 SDG 목표 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며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와 SDG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달성에 대응하고 있다(UNESCO, 2017; 이창언, 2022: 329 재인용). SDGs는 평생학습 제공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생애 주기에 맞춘 교육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이창언, 2020a: 404; 이창언, 2022: 330).

일본 정부는 SDGs 합의 채택 이후 SDGs 이행·실천 과정에서 강조한 지속가능성의 가치 창조와 적용을 세계(Global)적 수준과 광역(Regional,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수준, 국가(national), 지방(local) 수준과 같은 수직적 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수평적 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나 기업 활동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SDGs를 정부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自治体·地域活性化編, 2020: 24-27; 이창언 2022a). 일본은 SDGs 합의 채택 이전 'ESD 관계부처 연락회의'에 의한 부처 횡단 연계 체제를 통해 정책 입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각 부처가 긴밀히 제휴하여 소관 분야의 ESD 보급·추진에 노력하는 동시에 ESD 원탁회의와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에서 ESD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 발신을 강화한 바 있다(이창언, 2022a: 4033).

## 2. 일본에서 ESD를 제안하게 된 배경

일본에서 전쟁 후 고도경제성장기에 공해문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4대 공해병(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및 옷카이치시(四日市) 천식)은 사회문제로 크게 다루어졌다. 한편, 유럽과 미국도 산성비나 농약 등의 화학물질을 비롯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이 1962년에 출판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있던 DDT 등의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호소해 세계의 환경 보호 활동의 단서가 되었다. 공해와 같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영속적인 번영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동서양의 공해문제를 배경을 근거로, '지속가능성'

이 중요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의 형성이 형성되었다. 1984년 일본의 제안에 의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이하,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유엔에 설치되었다.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한편, 현세대의 요구도 만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과 요인을 근거로 일본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2005년~2014년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제57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이 채택·선포되었으며, 유네스코를 선도 기구로 지정하였다.

### 3.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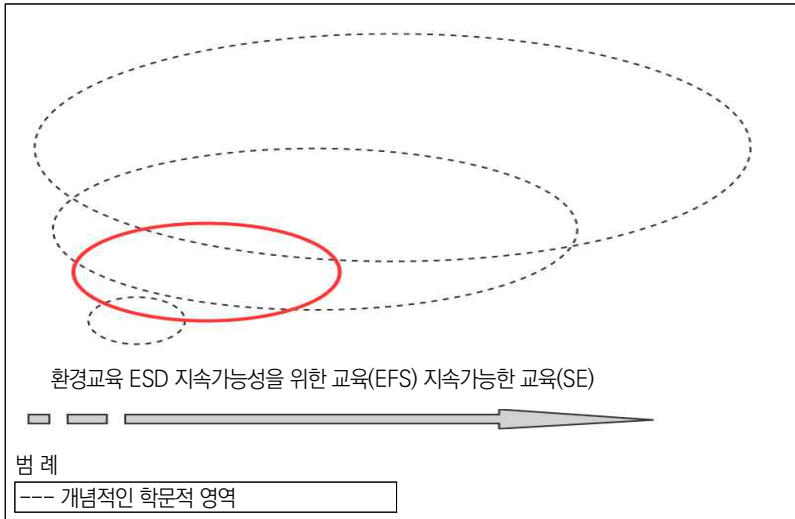
ESD에 관련한 일본 환경교육의 특성, 일본 정부의 ESD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특성, ESD가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운영되기까지의 과정과 추진체계,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중층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일본 ESD 연구 논문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ESD 연구 방향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ESD 실행 확산을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II. 일본 ESD 선행연구 검토

### 1. ESD 개념

일본에서는 ESD의 개념 및 실천 방법, 특히 환경교육과 ESD의 관계 정립 등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SD와 관련 용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환경교육에서 ESD로, ESD에서 EFS(Education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로, SE(Sustainable Education, 지속가능교육)로 변천하고 있다(Blewitt; 2004)〈그림 1〉 참조. 공통되는 용어인 ‘Sustainability’는 라틴어 *sustinere*에서 ‘Education’은 라틴어 *educatio*에서 파생되었다. 전자는 환경, 사회 및 경제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고 모델이다(Jeronen, 2013). 후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공유하고, 추론과 판단력을 개발하고, 삶을 위해 자신이나 타인을 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 또는 과정을 나타낸다(Thesaurus, 2021). 결론적으로 ESD로부터 서서히 ‘경제적 지속가능성’ 요소가 약해지고 환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게다가 교육 영역 자체가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ESD가 환경교육과 EFS와 SE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UNESCO도 주장했던 것처럼 ESD는 시대의 변천 속에서 성격, 강조점을 바꾸는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호성으로 비판되어 온 SD의 성격과 ESD의 포괄성으로 평가되어 온 특징이 점차 구체화된다.

〈그림 1〉 Sustainability 지향의 교육계보



출처: Blewitt, J. et al (eds) (2004) The Sustainability Curriculum. Earthscan

지속가능성의 변화 창조자(changemakers)는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확보해야 한다. ESD의 현재 접근 방식은 학습자가 지구-국가-지역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자기 행동을 성찰하고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ESD는 학습 내용과 학습 결과, 교수법 및 학습 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전환적인 교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ESD는 환경-사회-경제를 교육과정에 통합할 뿐만 아니라 상호적이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teaching and learning)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SD는 자기주도 학습, 참여와 협력, 문제 지향성, 학문적 통섭,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행동 중심의 전환적 교수법 (action-oriented transformative pedagogy)을 요구한다. 오직 이런 교육학적 접근법만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UNESCO, 2017: 7).

ESD는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하여, 같은 해 제57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DESD 및 2013년 제3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ESD)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을 통하여 유네스코를 주도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DESD의 목표는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실천을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며, 둘째, 모두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식,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었다.

ESD 국제실천 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이하 GAP)은 제 37차 유네스코 총회(2013년 11월)에서 승인된 이후 유엔 총회 결의문 A/RES/69/211에서 인정되었다. 이어 2014년 11월 12일에 일본 나고야(아이치현)에서 열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에서 출범했다. GAP는 DESD를 기반으로 ESD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UNESCO, 2017: 7; 이창언 2022: 325-326).

일본 환경성은 환경교육과 ESD를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武田玄雄, 2014).<sup>1)</sup> ESD의 추진은 일본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기록되어 있으며, 초·중학교 지도요령의 전문과 총칙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인재 양성’이 포함되었고 각 교과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2002년 유엔 총회에서 일본이 제안하고 채택된 DESD에 근거하여 ESD는 지구 규모와 지역행동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는 태도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교육목표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문부와

1) 日本環境運営 홈페이지 <http://eco.env.go.jp/lib/class/> (Accessed 2022.11.15.)

학생은 ESD로서 환경·빈곤·인권·평화·개발과 같은 다양한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관련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sup>2)</sup>

2012년에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정연구센터의 최종보고서는 ESD 학습지도 목표를 교과 학습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과제를 찾고, 적용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능력·태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설정했다. 즉, ESD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자로서 적합한 자질이나 가치관 형성에 필수 불가결한 교육으로 규정된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구성 개념을 추출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구성 개념을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개념(실태 개념)과 사람의 의사나 행동에 관한 개념(규범 개념)이라는 2개의 상위개념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시스템과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시점에서 ① 다종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② 그것들이 상호작용하고 ③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완수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3가지 관점을 정립했다.

〈표 1〉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구성개념

상위 개념	관점		
	관점1. 다양한 요소로 구성	관점 2. 상호작용	관점 3. 변화
1. 사람을 둘러싼 환경 (자연·문화·사회·경제 등에 관한 개념(실태 개념))	I. 다양성(여러가지)	II. 상호성 (관계되어 있다)	III. 유한성 (한계가 있음)
2. 사람(집단·지역·사회·국가 등)의 의사나 행동에 관한 개념(규범 개념)	IV. 공정성 (한사람 한사람 소중히)	V. 연계성 (힘을 합쳐서)	VI. 책임성 (책임을 가지고)

출처: 国立教育政策研究所 学校におけるESDに関する研究(2012年3月)제구성

〈표 1〉은 두 개의 상위 개념과 3개의 관점, 6개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

2) <https://www.dainippon-tosho.co.jp/>(Accessed 2022.11.17.))



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구성 개념을 추출하고 있다(後藤田洋介·中澤静男, 2016: 170). 실태 개념의 3가지 관점은 다양성, 상호성 유한성이다. 다양성(多様性)은 자연·문화·사회·경제가 기원·성질·상태 등이 다른 다종다양한 사물(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는 다종다양한 현상(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상호성(相互性)은 자연·문화·사회·경제가 상호작용하고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순환하거나, 정보가 전달·유통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유한성(有限性)은 자연·문화·사회·경제가 유한한 환경 요인이나 자원(물질이나 에너지)에 의지하면서, 불가역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는 관점이다.

규범 개념으로서 공평성(公平性)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나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의 향유 등이 지역이나 세대를 걸쳐 공평·공정·평등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태도와 관점을 의미한다. 연계성(連繫性)은 지속가능한 사회는 다양한 주체가 상황이나 상호 관계 등에 따라 순응·조화하여 서로 제휴·협력함으로써 구축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 태도, 관점을 말하며 책임성(責任性)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다양한 주체의 미래상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변용·변혁함으로써 구축될 것이라는 확신과 실천의지를 의미한다.

ESD에 의하여 성장하는 능력·태도는 자신의 학습지도가, 어느 개념의 이해를 깊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의 단서가 되도록 설정된다. ESD 관점의 학습지도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태도의 예로서, 다음의 7가지가 있다.

〈표 2〉 ESD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미래상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힘
다면적·종합적으로 생각하는 힘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출처: 日本文部科学省(<https://www.mext.go.jp/>)

일본은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을 위해 교육 및 학습의 모든 수준과 분야에서 ESD 행동을 촉진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ESD 확산을 위한 과정과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표 3〉 참고).

〈표 3〉 현장교육에서 ESD 실행 순서

POINT1 목표 설정	활동 목표에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관점이 포함되도록 설정한다.
POINT2 방법의 재검토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 문화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는 학습인지를 재검토한다.
POINT 3 연결 방식의 재검토	배움이 어떻게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 배우고 협동할 것인지, 무엇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와 같은 '연결'이 교육 과정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출처: 岡山市教育委員会 논의 재구성

## 2. ESD 연구 동향

일본의 ESD연구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있다. 그것은 ESD 이론, 학교 교육과 ESD,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의 발전과 전개, 실천적 교육으로서 ESD의 본질과 내용 등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주요 ESD 연구자와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 만들기 교육(地域づくり教育)으로서 ESD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ESD 이론과 관련하여 阿部(2009)는 ESD에 관하여 실천, 제도, 연구 면에서 정리하였다. 그는 일본의 제안으로 DESD가 채택되었지만 축적된 ESD 연구가 부족하며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환경교육과 ESD 비교연구를 교육현장을 기초로 살펴보면 환경교육은 bottom-up 방식, ESD는 교육현장에서 벗어난 top-down으로 기획되었다고 주장한다(原田, 2009).

鈴木(2011)는 ESD를 교육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지역 ESD의 조직화·계획화의 과제를 제시한다. 今田(2008)는 ESD의 다양한 교육 개념을 중시하고 국제성, 시민성, 미래지향성의 관점에서 ESD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유의점을 제안한다. 池田(2017)는 2030년을 목표로 한 ESD, 환경교육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습지도는 ESD, SDGs를 염두 할 것을 제안한다.

永田(2020)는 ‘ESD for 2030’의 특징 중 하나는 SDGs에는 목표로 내세워지지 않은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 개발과 문화가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ESD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SD는 학교 교육에서 대상 연령에 따라 취학전 교육, 초·중·고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矢野(2022)는 보육현장, 초등학교, 보육자 양성학교와 협업을 통해 ESD for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취학 전 아동의 감수성을 높이고 친숙한 자료와 환경에 참여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육성하는 “목재 놀이기구” 교재 개발을 제안한다. 吉田·三浦(2019)는 ESD에 기반한 초등학교 환경학습으로 사회과를 선택하여 수업계획과 성과를 검토한 후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학습시간에서 실천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고 기술한다. 石野·石川(2017)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은 환경과 사회에 중점을 두지만, 앞으로는 무역에 의한 세계 연결, 무역 폐해 등을 언급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눈을 돌려 환경·경제·사회의 3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요청한다. 西原 他(2017)는 초·중·고교의 가정과 교과서 기술 내용을 환경·경제·사회·문화에 걸친 폭넓은 ESD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 과목은 일상생활로부터 현대사회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가정 과목 선생님이 ESD를 인식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佐藤·阿部(2008)는 ESD 연구 분야로 DESD의 발전과 전개와 국제적

인 대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들은 DESD의 목표와 실시를 위한 비전 구축과 제언, 협의와 주체자 의식,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능력 개발과 훈련, 연구 개발과 이노베이션, ICT,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7가지의 전략을 소개한다. 佐藤(2015)는 DESD에 대한 고찰을 위해 유엔 주요 문서나 다양한 논의를 파악하였다. 望月(2014)는 포스트 2015 아젠다에 대한 GAP의 공헌으로서 다양한 주체가 일체가 된 상호 존중·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GAP의 가능성을 (1) 정책의 추진, (2) 학습 환경의 전환과 ESD 역량의 양성, (3) 교육·트레이너의 능력 개발, (4) 젊은이(청소년)에의 지원, (5) 지역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의 홍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협력 사례와 관련하여 建元·飯田(2020)는 일본의 SGH고등학교와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의 연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ESD의 관점에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국제협동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시한다. 石野·石川(2020)는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핀란드와 일본의 ESD 정책을 비교하고 환경교육 전담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제정한다. 松井(2020)는 일본 유네스코와 유네스코가 인식하는 ESD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D)의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중점 목표는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분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15).<sup>3)</sup>

3)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ESD 연구 분야로 실천적 교육은 지역 만들기 교육과 자연재해 관련 환경교육에 ESD가 활용되는 현황을 정리한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일본의 특수성을 반영한 ESD의 창조적 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ESD 연구 분류

연구분류	주요 연구자
ESD이론	阿部治(2009), 原田泰(2009), 今田晃一(2008), 永田佳之(2020) 등
학교 교육	矢野真·田爪宏二·吉津晶子(2022), 吉田剛·三浦秋司(2019), 石野沙織·石川誠(2017), 西原直枝 他(2017) 등
DESD의 발전과 전개	石野沙織·石川誠(2020), 佐藤真久·阿部治(2008), 佐藤真久(2015), 建元喜寿·飯田順子(2020), 松井晋作(2020), 望月要子(2011, 2014) 등
실천적 교육	池田満之(2022), 朝岡幸彦(2005), 小栗有子(2010), 岩佐(2012), 藤岡達也(2015, 2020), 阪上弘彬·村田翔(2019) 등

일본의 환경 교육학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 ESD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 만들기 교육으로서의 ESD’이다.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주적·주체적 학습 실천 활동과 그것을 지원·조직화하는 지역사회 교육 실천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이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교육 평생학습의 전개 논리로서 제기된 것이 ‘지역 만들기 교육론’이다.

지역 만들기 교육이란, 지역 과제에 임하는 학습인 ‘지역 만들기 학습’의 지원·조직화를 말한다. 鈴木를 중심으로 하는 북해도대학의 연구 그룹이 제창한 ‘지역 만들기과 학습의 전개 논리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조사와 학습을 통해 지역 과제의 파악과 과제 해결을 위한 협동의 실천, 그리고 실천의 총괄과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서의 계획 책정이라는 지역 만들기 전개 과정에서의 교육 실천과 학습 활동의 논리를 밝혀왔다(鈴木, 2009, 2014).

지역에 내재된 지속가능성을 회구하는 사상에 뒷받침된 활동 속에서 수행된 ESD 연구는 小栗(2010)과 岩佐(2012)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小栗(2010)의 연구는 지역과의 대면 방법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구가 ESD와 어떻게 연결되어 왔고, 어떠한 문제, 관심에 의한 것인지를 성찰하고 있다. 지역 과제의 공유화를 위한 작용에서 지역의 풍토, 생활 문화, 삶의 양식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 부여와 행사(Empowerment)의 과정을 지지하는 교육활동'을 ESD로 파악한다. 그는 가고시마현 다루미즈시(鹿兒島県垂水市)의 사례를 통해 자원 순환형 사회관점에 입각해 지역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성인교육으로서 ESD의 의의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

岩佐(2015)는 鶴見의 내발적 발전론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생활세계의 공동교육'을 '생활세계에서의 관계(자연-사람, 사람-사람과의 관계 맺기), 공동분모('집단-지역의 공통성), 전통의 재창조'라는 3가지 주제로 암묵지(Tacit Knowledge)와 변화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분석한다. 岩佐(2012)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내발적 공동교육'(내발적 ESD)의 개념을 재구성해서 내발적 발전에 뿌리내리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이 가진 의미를 강조한다.

池田(2022)는 오카야마지역의 프로젝트 기본구성에 관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연구를 통해 학교,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전체로 확대된 ESD 추진 성과에 관하여 기술한다. 小栗(2004, 2010)는 환경교육개념의 확장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생활 장소로서 지역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양립하며, 환경·경제·사회의 균형과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DESD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자연재해 관련 환경교육 연구는 藤岡(2015)가 독보적이다. 그는 기존의 자연의 혜택, 재해라는 양면성을 중요시한 환경교육이나

ESD에서, 방재·감재를 고찰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환경교육을 구축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후 후속 연구(2020)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교육학회에서 ‘재해’가 계속 조직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阪上·村田(2019)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의 두 가지 재해를 시점으로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방재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 Ⅲ. 일본의 환경교육, ESD의 제도화 과정

환경교육은 197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생한 공해문제, 자연 파괴에서 지역을 지키기 위한 교육 실천으로 공해교육, 자연체험학습으로 시작되며 1971년, 학습지도요령 영역에서 공해교육을 명기하였다. 환경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일본이 제안한 ESD 10년(2005~2014년)이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는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공해대책기본법을 대신하여 1993년에 환경기본법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 등), 제26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정하고, 그후 2003년 7월 공포된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이 시행되어, 5개 관련 부처(환경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가 담당하여 환경교육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년에 「환경교육촉진법」이 입법되어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의 진흥과 정보의 제공 및 이념, 방침,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2011년에는 「환경교육등 촉진법」으로 ESD개념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유는 행정·기업·민간단체 등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10년과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른 것이다.<sup>4)</sup>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의 5개 부처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정, 직장, 지역 등의 모든 장소에서 자발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폭넓은 실천적 인재 만들기로 연결되는 인정 제도 등을 보강시키는 것과 동시에, 협동 대처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추진 틀(법 8조)로 환경교육 등의 대처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 작성과 계획 책정시 지역협의회를 설치한다. 체험 기회 장소의 인정(법 20조)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제공하는 자연 체험 등의 기회의 장에 대해서, 안전성 등의 요건을 채우는 것을 광역지자체 지사가 인정한다는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4년 「ESD에 관한 유니세프 세계회의」가 열려서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 「유엔 ESD 10년의 후계 프로그램과 GAP」의 시작되었으며 “아이치·나고야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SDGs는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로, 2030년을 기한으로 하는 포괄적인 17개 목표(Goal)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다. ESD는 이 목표 4,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의 세부 목표 4.7에 자리매김하였는데 목표 4 이외의 SDGs의 17개 모든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일본 내에서 ESD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도자를 육성하는 기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4) 環境教育等促進法への改正の概要 <[https://edu.env.go.jp/files/kaisei-h23\\_a.pdf](https://edu.env.go.jp/files/kaisei-h23_a.pdf)>



목표로 한다. 이는 일본이 선도하여 2019년 제40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ESD의 「ESD for 2030」(2020~2030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2018년에는 「환경보전 활동, 환경보전 의욕 증진 및 환경교육 및 협동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서 환경교육 등 촉진법에 근거하는 관련 전문가 회의(환경교육)를 통하여, 4회에 걸쳐 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사람의 환경 배려 행동 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의 주체적인 참가와,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으로부터의 참가 의욕을 기르기 위한 「체험활동」의 촉진이나, 지역이나 기업이 임하는 「체험의 기회의 장소」의 활용 등을 도모한다.<sup>5)</sup>

2019년에는 유네스코 총회 및 유엔총회 GAP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ESD 추진의 국제 기준인 「ESD for 2030」을 ESD 강화와 SDGs 17개 모든 목표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구축이라는 목표가 채택되었다.

2021년에는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의 베를린 선언에 의해 「ESD for 2030」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2021년 5월에 「제2기 ESD 국내 실시계획」이 「ESD for 2030」의 이념을 바탕으로 ESD가 S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ESD for 2030」에 제시된 5개의 우선 분야마다 각 이해관계자의 실천 행동을 기재하고, ESD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여 네트워크의 강화 및 정보 발신의 강화를 중점 실시 항목으로 명기하였다.

2021년에는 「환경부와 문부과학성의 연명에 의한 교육위원회 통지」에서 개정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이 공포된 것을 계기로 환경성과 문부과학성의 연명으로 전국의 교육위원회 등에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통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에 관

5) 環境省(2022).環境教育・ESDの推進

([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Accessed2022. 11.15.))

한 교육」을 추진하였다.<sup>6)</sup>

〈표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ESD for 2030

항목	주요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ESD의 10년(DESĐ)(2005~2014) 및 ESD에 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2015~2019)의 후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2020년~2030년의 ESD의 국제적인 추진 틀</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D의 강화와 SDGs 17개 모든 목표 실현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을 목표</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17개 모든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큰 변혁에 중점화</li> <li>• 유네스코 회원국에 의한 리더십에 중점화</li> <li>※GAP의 우선 행동 분야는 유지하면서 일부 조정</li> </ul>

출처:環境省(2022).環境教育・ESĐの推進(2022년)

## IV. 일본 지속가능발전교육(ESĐ) 제도·시스템·이니셔티브

### 1. ESD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ESĐ는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분야적 지속가능성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 국내 ESD 촉진 활동 초기에는 주로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2009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Đ) 중간회의 이후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 실행계획을 수정했으며, DESĐ 후반에는 사회, 환경, 경제, 문화 주도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진되었다.

DESĐ는 일본 내 관련 법률과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2003년에 제정된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교육 추진법」의 명칭을 2011년에 「환경

6) 環境省(2022).環境教育・ESĐの推進

〈[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Accessed2022. 11.15.)〉

교육촉진법」으로 바꾸어 개정하면서 환경교육을 「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교육과 학습」이라는 정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관련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으로 변경하였다.

GAP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교육 및 학습의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행동을 일으켜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1)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관, 태도를 얻는 기회를 갖기 위해 교육 및 학습을 재지향하는 것 (2)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의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교육 및 학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ESD 해석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UNESCO 2014b) ESD를 “권리 기반 교육 접근법”으로 자리매김하고 교육 및 학습을 재지향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노력에서 교육 및 학습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SD for 2030의 채택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로드맵에서는 5개 행동 분야로는 ① 정책 추진, ② 학습환경의 변화(기관 포괄적 대처), ③ 교육자의 능력 구축(인재양성), ④ 청소년·청년의 참여 장려, ⑤ 지역 수준에서의 활동 촉진을 명기하였다.

〈표 6〉 ESD 5대 우선행동 분야

1. 정책 추진	2. 학습환경의 변화	3. 교육자의 능력 구축	4. 청소년 참여장려	5. 지역 수준에서의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DGs 관련 정책에 ESD 반영</li> <li>·교육정책에 ESD의 위치 지정</li> <li>·지구규모 과제에 관련된 시책에 있어서의 ESD의 실시 등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한 ESD 실시</li> <li>·ICT화를 통한 교육환경의 충실</li> <li>·기관 포괄형 연계추진을 향한 네트워크의 형성·강화 등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등에 대한 연수 등</li> <li>·ESD 추진 안내서 작성, 활용</li> <li>·각 기관에서 ESD를 실천하는 사람의 육성 등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간의 커뮤니티 만들기</li> <li>·국제적인 논의에 유스가 참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li> <li>·청소년 교류의 추진 등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D로 로컬SDGs 추진</li> <li>·전국적인 ESD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 발휘 등에 대해 기재</li> </ul>

출처:UNESCO(2021). 지속가능발전교육(ESD)로드맵 재구성

ESD의 대상 영역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과학적 지식으로 지구 허용량의 한계(Planetary Boundary)를 지적한다. 그리고 인류 전체로서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지구를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인간이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 청정한 공기와 물 확보, 생태계 수복과 생물다양성 유지, 기후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수이며 ESD의 관점이 크게 활용되게 된다고 제안한다.

〈표 7〉 ESD추진과 관련한 주요정책 흐름

연도	해외 주요정책	연도	일본 주요정책
2002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ESD의 10년”을 일본이 제안	2003	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국내 실시계획 제언
		2005	일본 ESD 10년 관계부처 연락회의 설치
		2006	일본 ESD 10년 실시계획 수립
		2008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유·초·중/ 3월 공시)·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2008	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 정부에 ESD 보급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스쿨 활용 제언
		2009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3월 공시)
		2011	일본 ESD 10년 실시계획 개정
2013	제37회 유네스코총회 「ESD에 관한 글로벌액션프로그램(GAP)채택		
2014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 “UN ESD의 10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의 「GAP (Global Action Program) 개시·「아이치·나고야 선언」 채택		
2015	유엔 SDGs 만장일치로 합의 채택	2015	ESD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 설치/ ESD 원탁회의 설치

2016		2016	<b>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b> ESD(GAP) 실시계획 책정(GAP 기간 2014~2019) <b>SDGs 추진본부, 원탁회의 설치</b> <b>SDGs 실시지침 책정</b>
2019	<b>제40회 유네스코 총회 및 제74회 유엔총회</b> 「ESD for 2030」이 채택	2019	ESD(GAP) 실시계획의 총괄적인 검토 실시
2021	<b>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b> 베를린 선언에 의하여 「ESD for 2030」이 본격 시동	2021	<b>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b> 「제2기 ESD 실시 계획」 책정

출처: 필자 정리

일본은 2003년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국내 실시계획 제언한 이후 2005년 일본 ESD 10년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면서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일본 ESD 10년 실시계획 수립(2006년)과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유·초·중/3월 공시)과 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ESD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같은 해 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는 정부에 ESD 보급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스쿨 활용을 제언하는 한편, ESD국제포럼 2008을 유엔대학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 등에 ESD 보급 활동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까지 포함하는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3월 공시)을, 2011년에는 일본 ESD 10년 실시계획을 개정하였다.

SDGs가 합의 채택된 2015년 ESD 관련 관계부처 연락회의와 ESD 원탁회의를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일본 ESD 글로벌 행동 프로그램 실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6년 SDGs 추진본부와 SDGs 원탁회의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일본의 SDGs 실시지침을 공표했다(2019년 개정).

일본의 SDGs 실시지침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도자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 실시지침에서 ESD는 지역이나 세계의 여러

과제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SDGs의 17개 모든 목표의 달성 기반을 만든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역 탈탄소 로드맵(2018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 등 촉진법 및 기본방침 및 제2기 ESD 실시계획에 따라 연수나 안내를 활용한 교육자의 육성, 유네스코 스쿨 등의 선진적인 ESD 실시모델의 수평 전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한 ESD 실시의 촉진, 지원 네트워크의 정비·운용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ESD를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의 ESD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가 2016년 ESD 실시계획, 2021년 '제2기 ESD 실시 계획'을 책정하였다. 차기 계획에서는 'ESD for 2030'의 철학을 바탕으로 ESD가 S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성평등, 2050년 탄소중립,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디지털혁신(Digital Transformation :DX)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구자를 육성하고 있다. SDGs와 관련하여 목표 4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Target 4.7에 ESD(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중학교 '신학습 지도 요령(2019년 3월 공시)'에는 신학습 요령의 전문 및 총칙에, 모든 아동(학생)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제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환경교육 등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환경보전 활동, 환경보전 의욕 증진과 환경교육 및 협동 노력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민, 민간단체,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를 정의하며 방침의 책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ESD 추진 주체

일본의 ESD는 환경성과 문무과학성이 주도하며 2016년 'ESD(GAP)

국내 실시계획'에서 관계부처 연락회의(12개 부처가 대응, 사무국은 환경부, 문부과학성)를 출범시켰다. 환경성에서는 환경교육 등 촉진법 및 기본방침에 근거하면서 ESD의 시점을 도입한 환경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ESD의 국제 틀을 실시해 나가기 위한 2021년 제2기 국내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 2021).<sup>7)</sup> 한편 관계부처 연락회의 및 ESD 원탁회의(2015년)가 설치되어 국민의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해 ESD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文部科学省홈페이지).

#### 〈표 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의 구성원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내각부장관 관정책입안총괄심의관, 소비자청 차관, 총무성 장관관방장, 외무성 지구규모과제심의관,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회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환경성 종합환경정책통괄관  
 ※의장: 문부과학사무차관, 환경사무차관  
 ※읍서버: 법무성 인권옹호국장, 후생노동성 정책 통괄관(종합정책담당)

출처: 環境省(2022). 環境教育・ESDの推進(2022년)

일본의 'ESD 국내 실시계획'의 자문 기관으로서 설치된 'ESD 원탁회의'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GAP 후속 프로그램이나 '제2기 ESD 국내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의 'SDGs 실시지침'이나 'SDGs 행동계획'과 관련해서 SDGs 시민사회 네트워크(SDGs 재팬)의 멤버로서 SDG 4.7을 모든 교육에 대해 주류화하기 위해 국내의 교육 과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이창언 2022a).

일본 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의 개정판을 발표할 때마다 각 교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sup>8)</sup> 과학,

7) 자세한 내용은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の「我が国における「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に関する実施計画(第2期 ESD 国内実施計画(2021년 5월 31일 결정)」 참조.

사회, 가정, 경제 등의 교과서에 이미 생태계, 에너지, 소비자 행동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어와 도덕 교과목 교과서에도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문학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발전 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and Resource Centre, DEAR)와 전국 발전교육 관계자들이 교육 실천에서 SDGs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6 중기 중점사업’ 1, 2 및 4에 SDGs의 추진 방침, 목표, 사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이창언 2022a: 4038).

문부과학성 및 유네스코 일본위원회는 ESD의 보급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초·중등학교 등 학교 교육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ESD 모델 학교인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이선경, 김남수, 2017). 유네스코 학교에서는 환경, 전통 문화, 먹을거리 교육, 국제 이해, 평화 인권, 생물다양성 등의 주제를 다룬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된다(阿部治, 2014). 2017년 5월 일본 국내에서의 회원 학교 수는 1,037개로 1개국 당 회원 학교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표 9〉 일본 유네스코 스쿨 현황과 활동

사업 구분	주요 내용	특징
유네스코 스쿨 전국대회	유네스코 스쿨 전국대회(ESD 연구대회)는 ESD의 추진 거점인 유네스코 스쿨의 활동 진흥 및 ESD의 전국적인 보급·심화를 목적으로, 문부과학성 주최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유네스코 스쿨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 관계자 약 600~900명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 워크숍, 패널 토론 등을 통해서, 모범 사례의 공유, 교원의 지식 공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제휴를 강화한다.	전국 규모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8) 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環境教育」に関わる主な内容の比較

〈[http://www.mext.go.jp/a\\_menu/shotou/kankyou/\\_icsFiles/afieldfile/2013/01/22/1329192\\_1.pdf](http://www.mext.go.jp/a_menu/shotou/kankyou/_icsFiles/afieldfile/2013/01/22/1329192_1.pdf)/ (Accessed2022. 11.15.)〉



유네스코 스쿨 지원 대학 간 네트워크 (ASP UnivNet)	고등교육기관 유네스코 스쿨의 파트너. 유네스코 스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우수한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ESD 추진사업 (ESD-SDGs 컨소시엄)	다양한 ESD/SDGs 관련 단체(대학, 교육위원회, NGO 등이 대표단체가 되어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유네스코협회, 전문기관 등)와 협력해 지역 ESD 보급부터 특정 주제를 전국화하기 위한 ESD 실천까지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지원, 이슈의 전국화
ESD 추진 네트워크	ESD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에서 실천하면서 다양한 수준, 분야에서 횡단적으로 협동·제휴해 ESD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부과학성과 환경성의 공동 제안에 의한 네트워크이다. ESD 활동 지원 센터(전국·지방) 및 지역 ESD 활동 추진 거점으로 구성된 민관 협동에 의한 플랫폼이다.	네트워크 지원, ESD 센터 플랫폼
유엔대학 RCE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 거점)	유엔대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계 각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지역 거점(RCE: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고 네트워크화해 나가는 사업이다. RCE는 고등교육기관, 초·중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및 기타 지역의 ESD 추진자로 구성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로 ESD 추진 분야의 횡단적인 정보공유, 대화, 협동 플랫폼이다.	정책연구, 교육
청소년, 교직원 교류 지원	「ESD 일본 청소년·청년」의 활동과 콘퍼런스 개최를 개최하며 ESD/유네스코 스쿨에 관한 사업을 전개한다. 「ESD 일본 유스 콘퍼런스」는 국내 각지에서 ESD에 임하고 있는 다양한 젊은 리더들(학생, 교원, NPO, 행정, 기업가 등)이 업종과 분야를 넘어 연결되어 서로 배우고 연계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조류를 창출해 나가는 자리이다(주최: 문부과학성,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공익재단법인 고이평화재단).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ESD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AP)」이 정하는 5대 우선 행동 분야 중 하나이다. 초·중등 교직원 국제 교류 사업은, ESD 관련 국내외 교직원 교류 사업이다.	청소년·청년, 교직원 교류 지원

출처: 필자 작성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발전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and

Resource Centre, DEAR)와 전국 발전교육 관계자들이 교육 실천에서 SDGs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6 중기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2022-2026 중기 중점 방침 및 사업은 1. 발전과제와 발전교육에 관한 연구회 실시, 2. 성인교육·사회교육으로서의 발전교육 추진, 4. 교육정책에 관한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에 SDGs의 추진 방침, 목표, 사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SDGs와 발전교육연구회’, 강좌 개최, 책자 작성·보급, ‘젠더와 발전교육연구회’ 교재 분석, 교재 작성·보급, 성인학습·교육(ALE) 프로젝트 실시, 플랫폼/네트워크(사람·정보)구축,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례 수집·공유·정책 제언 제안 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육정책 현황 조사, 정부와의 대화 참여·타 단체와의 제휴·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단체(SDGs 재팬 및 JNNE 등)와 협동, 국내외 회의 참가·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창언, 2022a: 4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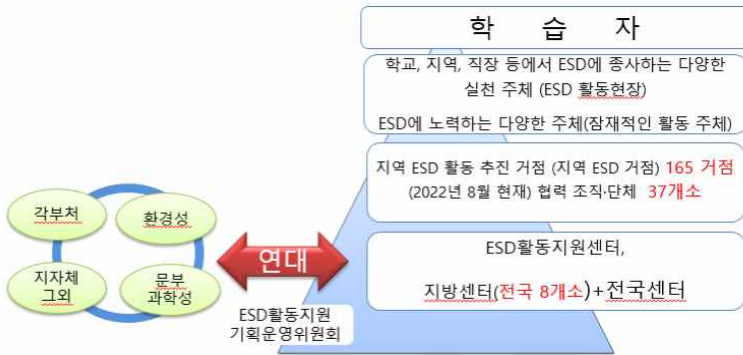
### 3. ESD 주요 사업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환경성은 제2기 국내 실시계획 등 ESD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위원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은 환경교육 관련 법률, 기본계획, 기본 방침 결정을 주도하고 각 법률에 ESD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의 담당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의 보전으로서 의식의 변혁이나 구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명기하였다. 또한 글로벌,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SDGs 인재 육성 프로그램 실시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 실시를 통해 ESD를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인재 육성사업<sup>9)</sup>

초·중학생을 위한 ESD의 관점을 도입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응모 중에서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20개의 모델 프로그램을 작성해, 전국 47개 지자체 특성(자연이나 문화·역사적 배경 등)을 가미한 「지역만이 가능한」의 지역고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실증하고 있다. 2013~2025년도까지의 사업으로, 약 60개의 모델 프로그램을 작성해, 약 140개의 초·중학교에서 지역 공유 프로그램의 실증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서는, 전국의 교육 관계자나 미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ESD를 알고 그 요소를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ESD가 각 지역에 정착하고 환경보전의 활동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ESD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출처: 環境省(2022). 環境教育・ESDの推進(2022년) 재구성

9) ECO学習ライブラリー〈[https://www.eeel.go.jp/news/?news\\_id=2233/](https://www.eeel.go.jp/news/?news_id=2233/) (Accessed 2022. 11.15.)〉

## 2)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 사업

교육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및 그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부 과학성과 제휴해 교직원이나 지역의 환경 NPO의 리더 등을 대상으로 ESD의 시점을 도입한 환경교육의 노하우를 배우는 「환경교육 리더 연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는 ESD의 관점을 도입한 질 높은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치이며, ESD에 조예가 깊고 학교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 등을 초대하여 강의 등이 행해지고 있다.

## 3) 국제 ESD 추진을 위한 사업

환경성에서는 국제연합대학(이하, UN대학이라고 함)와 함께 UN대학이 인정한 세계 각지의 ESD에 관한 지역거점 지원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ESD에 종사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네트워크 (ProSPER. Net: Promotion of Sustainability in Post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sup>10)</sup>의 운영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 한·중·일 삼국 환경장관모임(TEMM: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sup>11)</sup>에서도 ESD의 동향에 대해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등 ESD와 관련된 환경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환태평양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ESD의 견인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 国際連合大学高等研究所: <https://prospernet.ias.unu.edu/>

11) 環境省. 日中韓三カ国環境大臣会合 [http://www.env.go.jp/earth/coop/temm/introduction\\_j.html](http://www.env.go.jp/earth/coop/temm/introduction_j.html)

#### 4) ESD 추진 네트워크 정비와 센터 운영<sup>12)</sup>

ESD 국내 실시계획에 근거해, 문부과학성과 환경성이 공동으로 2016년도에 ESD활동지원센터(GEOC, UN대학+환경성+NPO)를, 2017년도에 8개소의 지방 ESD활동 지원센터(EPO, 환경성+NPO)를 개설하였다. 체제는 ESD활동 지원센터, 지방 ESD활동 지원센터, 지역 ESD 추진 거점(165개소), 협력조직·단체는 37개소, ESD 활동 지원 기획 운영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은 ① ESD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 공유 기능, 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ESD 활동의 지원 기능, ③ ESD 활동의 네트워크 형성, ESD 실천의 배움의 장 촉진 기능, ④ 인재 육성이다.<sup>13)</sup> 그 외 ESD-J (NPO)는 ESD를 사용하여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ESD 포럼, 세미나를 실시하고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관계성 강화와 새로운 연결의 창조를 목표로하였다. 지역을 핵으로 한 ESD 및 SDGs에 관련된 이벤트, 모집 정보, 뉴스 등을 Web 사이트, 메일, 매거진, Facebook 등에서 발신·뉴스레터, 활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센터에서는 관계자에게 히어링에 근거해, 학교교육 등의 요구를 근거로 한 간이적인 교재를 작성하고 있다. 동북(東北)센터에서는 교원 여행에서 SDGs 관점 도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中部)센터는 지역으로부터의 강사 초빙, 지역 주체와의 협의 등 시설 외에서 하는 회의 등 (온라인 회의)의 건수가 증가 추세이다. 중국(中国) 센터는 연간을 통해 개관일에 상담 체제를 정비해, 상담 및 조회 등 119건의 상담에 대응했는데 2022년은 2020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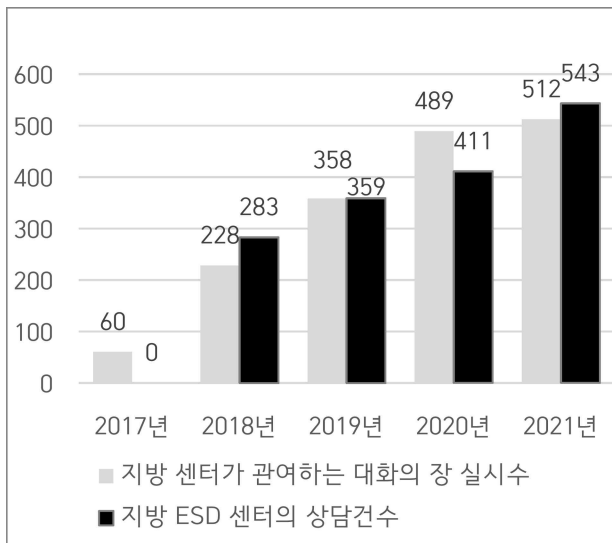
12) 環境省(2022).環境教育・ESDの推進([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 (Accessed2022. 11.15.)

13) 環境省(2022).環境教育・ESDの推進([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http://eco.env.go.jp/files/material_r409.pdf)) (Accessed2022. 11.15.)

다 16건이 증가하였다. 「강사 등 인재 소개」는 감소했지만 「연수·사업의 기획 운영」은 대폭 증가하였다. 시코쿠(四国)센터는 회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클라우드 플랫폼의 운용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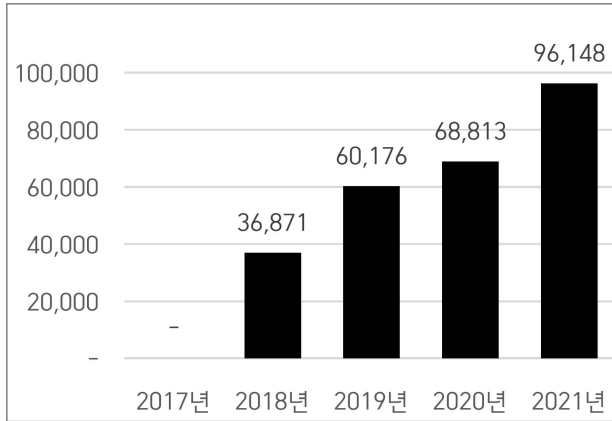
지방 센터가 관여하는 지방 포럼, 세미나 등의 실시 수는 2021년이 2017년에 비하여 8.5배 증가, 지역 ESD센터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2021년이 2018년보다 2.6배 증가, 지방 ESD활동 지원센터 상담 실적은 2021년이 2018년보다 약 2배 증가하여 지방 ESD활동지원센터는 지방에서 정착해서 활성화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지방 ESD활동지원센터 실적



출처: 環境省(2022). 環境教育・ESDの推進 再구성

〈그림 4〉 지방 ESD센터 웹사이트 방문 수



출처: 環境省(2022). 環境教育・ESDの推進 재구성

## V. 결론

일본 중앙정부의 환경교육 정책 추진은 환경성이 담당하지만 문부과 학성과의 협력 하에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SDGs 추진본부가 책정한 SDGs 실시지침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사회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SDGs를 반영하고 있다. ESD는 이미 제2차 ESD 일본(국내) 실시계획 단계에 들어섰고 학습지도 요령에서도 ESD 이념이 접목돼 ESD 시각에 입각한 학습이 진행된다(長岡素彦, 2021. 204). 한편, ESD for 2030은 회원국이 SDGs에 관한 국내의 관리 틀을 구축하며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공조한다는 전략 하에서 협동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이창언, 2022a). 이점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의 ESD는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중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추진력이며, 일본의 ESD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 시스템 추진 시스템이

ESD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환경부가 교육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타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학교 환경교육은 학교 전체적인 접근이나 범교과적인 접근 혹은 교과별 주제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ESD가 전체 교육과정 목표로 들어간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학습이 강조되면서 ESD와 결합된 환경교육이 제도의 확산과 교육 전반에서의 위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2018: 34). 지역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지역 내 협력 파트너들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적 협업, 협력 파트너들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일본처럼 ESD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각종 ESD 교육 활동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차원의 ESD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ESD플랫폼은 ESD자원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허브 기능 수행,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ESD 인증, 홍보 및 활성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ESD, 현장 지향형 ESD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본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연체험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체험학습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폭넓은 분야에 걸쳐 체험기회 장소를 인정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2018: 34). 일본의 ESD는 지속가능발전의 토대가 되는 원칙과 가치를 견지하는 것으로 환경, 사회, 경제 세 영역 모두 지속가능성이 발전하는 복지, 평생학습의 증진에 기여한다. 일본 ESD



는 무엇보다 현장(지역)의 수요, 의식구조, 여건에 기반을 두면서도 국제적 영향을 인정한다. ESD는 지구-국가-지역의 연계처럼 정규-비정규-비형식 교육 모두에 관여한다. 또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실용적인 관점을 중시한다. 사례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지니는 진화적 속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지역 상황, 지구적 이슈, 지역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일본의 ESD는 SDGs와 연계하여 지역적 의사결정, 관용, 기업가 정신, 적응적 노동 등 시민 정신 배양에 힘쓰며 학제 간 연계, 참여적이고 고도의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국 ESD 활성화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본 ESD 활성화 요인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ESD 활성화는 관련 제도와 법, 시스템 추진 시스템 구축이 주는 효과이다. ESD의 출발점은 교육의 공적 목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구축, 유지, 정비를 위한 활동 분담을 구조화하는 기본 원칙과 구성 원칙(organizational principle)을 포함한다. 일본 ESD 사례는 국가가 자국민을 비롯해 해당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ESD 실천과 관련한 이행실천 체계는 학교 및 지역사회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 규범, 표준에 따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화,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 ESD 연구와 성찰, 이해관계자 간 건설적인 협력 등을 촉진하는 제도는 ESD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중층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갖는 의미이다. ESD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한다.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사회적 장벽과 부문 간의 장벽을 허물어 가족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교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결과 교육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유네스코, 2022: 164). 그러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의사 결정과 대화에 시민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ESD 기획과 실행 상황 모니터링, 공동 평가 시도는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DGs 달성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교육 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육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s)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의 학습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유네스코, 2022: 50).

셋째, 다양성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맥락, 자원, 사회-역사적 현실에 근거한 실행이다.

일본 ESD는 전국 47개 지자체 특성을 가미한 ‘지역만이 가능한’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SD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학습을 넘어, 다양한 집단과 지식 체계 및 관행과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에 필요한 능력, 가치, 조건을 증진해야 한다. 상호문화적 시민의식의 기초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유네스코 2022: 60).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으로서 ESD는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번영하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교육은 공동으로 관리될 때 책임성이 배가된다. 경험과 기대, 지역의 맥락과 자원, 역사,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균일한 것으로 만드는 교육은 창조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ESD는 다양성 못지않게 주어진 맥락의 고유한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되는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주어진 상황의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반영해 적절히 재검토하고 재맥락화한 비교와 경험, 실행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고 실천을 배가한다.

넷째, ESD에 대한 기관 전체적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환경 조성이다.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으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적을 수립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번영하게 한다. 하지만 교사, 교육기관이 모두 똑같은 수준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NPO와 연계한 ESD 추진 네트워크 정비와 지원센터 운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지역사회 내 모든 학습 수준에서 ESD를 통합하고 국가·지역 수준의 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ESD 관련 파트너십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플랫폼(ESD 지원센터)을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이해자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NPO가 환경성과 연계하여 민간파트너십 형성 지원 (지역의 NPO, 기업, 행정,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나 사람에 의한 협동을 지원), 정보 교환·대화의 장 만들기, 상담 대응에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유영역(2010). “일본에서의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에 관한 교사, 대학생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23(3), 115-125.
- 유네스코(2022).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이선경·김남수(2017). “유네스코 이념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학교 전체적 접근을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선경·이재영·이순철·이유진·민경석·심숙경·김남수·하경환(2007).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생과 교사들의 인식”, 『환경교육』, 19(1), 1-13.
- 이정희(2020). “일본 초등사회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과교육연구』, 27(4), 15-27.
- 이창언(2022). 『SDGs 교과서』. 서울: 선인.
- \_\_\_\_\_(2022a) “일본의 ESD 현황분석”, 『인문사회21』, 13(5), 4031-4046.
- 조철기·심정보(2019). 일본의 지리교육 부흥 운동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25(2), 274-285.
- 최영분·민병미·최돈형(2005). “지속가능한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환경교육 체계화 연구”, 『환경연구』, 18(1), pp1-30.
-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2018).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연구”.
- Blewitt, J. et al (eds) (2004) The Sustainability Curriculum. Earthscan.
- Jeronen, E. (2013).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 O. Idowu, N. Capaldi, L. Zu, & A. D. Gupta (Eds.), Encyclopedia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rlin, Heidelberg: Springer.
- Sterling, S. (2008). “Sustainable education – Towards a deep learning response to unsustainability”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6(Spring), 63-68.
- Thesaurus (2021), Education. <https://www.dictionary.com/browse/education>. Accessed 20 July 2021.
- 朝岡幸彦(2005). “グローバル化の推進による環境教育・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特集)グローバル化と教育の課題” 『教育学研究』, 72(4): 530-543.
- 阿部治(2009).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の現状と課題” 『環境教育』, 19(2): 21-30
- 天笠茂(平成25年), “カリキュラムを基盤とする学校経営”, ぎょうせい: 24-28.

- 石野沙織・石川 誠(2017). “ESDを視点とした中学校社会科の一考察.” 『京都教育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第17号: 149-159.
- \_\_\_\_\_(2020). “国際比較から見る日本のESDの展望.” 『教職キャリア高度化センター教育実践研究紀要』, 第2号: 131-140.
- 池田満之(2017). “2030年を目指したESD・環境教育に関する考察と提言.” 『中国学園紀要』, 第16号: 221-230.
- \_\_\_\_\_(2022). “岡山地域におけるESDの成果と課題.” 『Rikkyo ESD journal』, 6: 20-23.
- 今田晃一(2008). “ESDのカリキュラム開発の視点:環境教育の概念と国際的展開.” 『教育研究所紀要』, No.17: 9-18.
- 岩佐 礼子(2012). “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の内発的教育(内発的ESD) - 宮崎県綾町上畑地区の事例から -.” 『環境教育』, 22(2):14-27.
- 小栗有子(2010). “ESD研究における「地域」との向き合い方.” 『環境教育』, 20(1):16-24.
- \_\_\_\_\_(共著)(2004). “環境問題と地域の自立的発展.” 沖縄県における軍用地主問題と地域づくり運動の課題: 359-388. 高文堂出版社.
- 環境省(2012a). “環境の保全のための意欲の増進及び環境教育の推進に 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 法律要綱”
- \_\_\_\_\_(2012b). “環境保全活・環境保全の意欲の増進及び環境教育並びに協働取組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平成24年6月26日閣議決定)”
- \_\_\_\_\_(2022). 環境教育・“ESDの推進.
- 国連ESDの10年(DESĐ)の振り返りとポスト2015におけるESDの位置づけ・今後の展望 - 文献研究と国際環境教育計画(IEEP)との比較 ポスト2015に向けた教育論議に基づいて -
- 後藤田洋介・中澤静男(2016). “持続可能な社会づくり」の構成概念とESDの視点に立った 学習指導で重視する能力・態度に関する一考察—実践事例の抽出検討による考察—. 『奈良教育大学紀要』, 65(1).
- 阪上弘彬・村田翔(2019). “日本の学校教育における防災教育の展開と特徴—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の2つの災害を視点に一.” 『兵庫教育大学紀要』, No.55: 141-151.
- 佐藤真久・阿部治(2008). “国連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の10年(2005~2014年) 国際実施計画(DESĐ-IIS).” 『環境教育』, 17(3): 60-68.
- 佐藤真久(2015). “国連ESDの10年(DESĐ)の振り返りとポスト2015におけるESDの位置づけ・今後の展望 - 文献研究と国際環境教育計画(IEEP)との比較、ポスト2015に向けた教育論議に基づいて -.” 『環境教育』, 25(3): 86-99.

- 鈴木敏正(2011).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ESD)”の教育学的再検討-開発教育と環境教育の理論的・実践的統一のために-.” 『開発論集』, 第91号: 127-153.
- 建元喜寿・飯田順子(2020). “ESDの視点に立った国際協働学習プログラムの開発と評価-日本のSGH校とインドネシアの高等学校の連携による実践から-.” 『ESD研究』, 3(3): 50-60.
- 永田佳之(2020). “ESD for 2030”を読み解く: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の真髄とは.” 『ESD研究』, 3(3): 5-17.
- 西原直枝他(2017). “家庭科におけるESDの構成概念および学習内容の明確化-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教科書分析を基に-.” 『日本家庭科教育学会誌』, 60(2): 76-86
- 中留武昭(平成28年). “今、なぜカリキュラムマネジメントが求められるのか” 『新教育課程ライブラリVol.5 学校ぐるみで取り組むカリキュラム・マネジメント』 ぎょうせい: 19
- 原田泰(2009). “日本でESDの理論教育の可能性.” 『環境教育』, 19(2): 31-32.
- \_\_\_\_\_(2009). “日本でESDの理論教育の可能性.” 『環境教育』, 19(2):31-32.
- 藤岡達也(2015). “ポストUNDEAD(国連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の10年)における防災教育-日本型環境教育構築の一つの観点として-.” 『ESD研究』, 24(3): 40-47.
- \_\_\_\_\_(2020). “環境教育の視点から防災、減災をどう捉えるか-環境教育学の構築に果たす災害研究の意義と課題-.” 『環境教育』, 30(1): 56-61.
- 望月要子(2011). “ESDと気候変動教育.” 『季刊環境研究』, No.163: 42-50.
- \_\_\_\_\_(2014). “ポスト2014ESDグローバル・アクション・プログラム概観とポスト2015アジェンダへの貢献.” 『季刊環境研究』, No.173, 5-17.
- 松井晋作(2020). “日本ユネスコ国内委員会とユネスコが捉えるESDとGCEDの概念の違い-日本のユネスコスクールへの学びの方策の提言-.” 『ESD研究』, 第3号 August: 40-49.
- 宮瀬美津子・坂崎亜衣(2008). “ESD実践のためのインフュージョン・アプローチ: 奈良教育大学附属中学校のカリキュラム再編.” 『熊本大学教育学部紀要』, No.62: 337-344.
- 矢野真・田爪宏二・吉津晶子(2022). “幼小連携のための保育・教育実践における木育教材の開発Ⅲ-オンデマンドを用いた教材の研究-.” 『京都教育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第18号: 131-142.
- 吉田剛・三浦秋司(2019). “ESDとしての小学校環境学習の実践研究-5学年の社会科を前提とした総合的な学習の時間を通して-.” 『ESD研究』, 2(2): 23-29.

Abstract

A Study on Japan's ESD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ESD Initiatives

Changeon Lee  
(Gyeongju University)  
Jaejoon Yang  
(Gyeongju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as emphasized along with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ESD i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s an educational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increase the individual'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more motivation and oblig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n years later, at the World Summit held in Johannesburg, the United Nations'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 emphasized the role of education as a specifically realized in ESD, was decided.

At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ESD' held in Japan in 2014, Japan proposed 'Suggestions on Civil Participation in ESD Policy' at the 'ESD UNESCO World Conference'. In May 2015, Japan participated in the 'UNESCO World Education Forum' held in Incheon, Korea, and actively presented there opinion on 'Education 2030', which will be the draft of SDGs Goal 4. And, it is currently playing a role as the most advanced ESD and SDGs of implementation country in As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implications related to ESD operation in Korea. The study examines Japan's environmental education related to ESD, the nature of ESD, the Japanese government's ESD-related laws and systems, and the process and promotion system until ESD was activated and operated in Japan.

Key Words: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DESD(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AP(Global Action Programme)

논문신청일: 2022.12.02.

논문심사일: 2022.12.20.

게재확정일: 2022.12.25.